

고전시가 여성화자 연구의 쟁점과 전망*

고 정 희**

1. '화자'의 문제성
2. 性別과 진정성에 대한 논란
 - 2.1 실제 작가의 性/性別 문제
 - 2.2 여성정서의 진정성 : 전일성과 당파성
3. 화자시학의 남성젠더적 성격
4. 여성화자 연구의 전망

* 이 논문은 한국여성문학회 제15차 정기학술대회(2005-겨울)에서 발표한 논문을 부분 수정한 것이다. 신은경, 이상경, 김복순 선생님의 질의와 토론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문초록

‘여성화자’ 연구의 쟁점은 ‘여성’과 ‘화자’ 중에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리 파악된다. 지금까지는 ‘여성’에 집중함으로써 여성주의적 연구에 대한 시각차는 확실했지만, 이러한 시각차를 조정하는 ‘화자’라는 개념의 문제성은 간과되어 왔다. 이 글의 목적은 ‘화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쟁의 핵심을 재인식하는 데 있다.

‘화자’를 역사적 실제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보는 여성주의에서는 실제작가와 화자의 성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로써 문학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이들은 항상 여성적 경험의 특수성과 당파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편협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화자’를 시학적 패러다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여성화자와 현실의 性別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실제작가의 性/性別과는 무관한, 보다 큰 ‘전일성’으로서의 ‘여성성’에 주목하여 여성주의적 편협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화자시학’은 중립적이기보다는 남성젠더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에 의거한 논의 역시 당파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글은 여성화자 해석에 간접하는 당파적 입장을 그대로 인정할 뿐 아니라, ‘여성화자’에 담긴 세밀한 함의들을 분석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당파적 해석들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다양한 당파적 해석들 간의 소통인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시각 자체를 공식적인 관점에서 통시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핵심어 : 고전시가, 여성화자, 여성주의, 화자시학, 전일성, 당파성, 젠더

1. '화자'의 문제성

'고전시가의 여성화자'란 기획 주제를 전해 듣고, 맨 먼저 떠오른 것은 박혜숙 교수의 「고려속요의 여성화자」(1998)란 논문이다. 이 논문이 학계에 끼친 파장이 드디어, 암묵적 동조나 사소한 불만을 갖고 여성주의적 연구를 관망해 오던 필자에게까지 미치는구나 싶었다. 오랫동안 우리 시가사에서 이별, 홀로 있음, 기다림, 비애의 순수미를 담지 해 온 '여성화자'가 실은 남성에게 의해 왜곡된 타자성의 발현일 뿐이라는 박교수의 주장¹⁾이 충격이었던 것은 당시만 해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고전문학을 분석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러한 주장이 새삼스럽지 않을 만큼 여성주의적 시각에 의한 고전문학 연구가 활발해졌다. 오히려 남성지배적인 문화에서 여성이나 여성적인 것들이 타자화·사물화된다는 주장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이 시점에서 여성화자 연구의 '쟁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언뜻 떠오르지 않았다.

자료를 살피다 보니 '여성화자'에서 '여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화자'를 강조하는 입장 간의 긴장이 감지되어,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연구동향이 달리 파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도 실제 현실의 여성, 여성 정체성, 여성적 정감, 여성적 체험의 고유성, 여성 해방적 측면 등 여러 각도에서 논의할 만한 문제적인 개념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바다.²⁾ 이 글에서는 '화자'라는 개념이 지닌 문제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성

1)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고전문학연구』 14집(한국고전문학회, 1998).

2) 신경숙, 「고전시가와 여성-연구사 검토와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창간호(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화자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싶기도 하거니와, 필자의 판단으로 는 ‘화자’의 시학과 여성주의적 시각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쟁점이 분출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시인은 작중에 설정된 시적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을 이상적 형태로 진술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화자를 창출한다. 화자라는 용어는 어조(tone), 서정적 자아, 페르소나(persona), 내레이터(narrator), 목소리(voice) 등으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애초에는 배우가 본모습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짙었지만 점차 문학용어로서 독립성을 지니게 되었다.³⁾ 공공롭게도 페르소나의 가면적 성격은 문학의 본질이자 동시에 여성적인 것과 쉽게 결부된다. “여성성 하면 假裝을 떠올리게 되는 까닭에, 假裝-비유적인 것, 텍스트성 등-은 여성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⁴⁾는 말은 여성성과 문학성이 쉽게 환치되는 이유를 말해준다. 그에 따라 여성화자의 목소리는 문학의 속성이 여성적인 데서 연유한 하나의 문학적 형상으로서, 현실의 性別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여성성 자체도 이미 가부장적 사회가 타자에게 강요해 온 허구적인 여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화자’를 초시간적·시학적 패러다임으로 보는 입장과, 역사적 실체의 이데올로기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보는 입장 간의 차이가 감추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고전시가의 여성화자가 어떻게 달리 해석되는지 살피고자 한다.

3) 권정은, 『여성화자 가사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2000), pp.9~11.

4) 타냐 모들레스키, 『여성 없는 페미니즘: ‘포스트 페미니즘’ 시대의 문화와 비평』,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 p.149에서 재인용.

2. 性別과 진정성에 대한 논란

2.1 실제 작가의 性/性別 문제

여성주의에서는 문학 텍스트에 구현된 여성다움은 그 텍스트가 생성된 사회에서 통용되던 性別로서의 ‘여성다움’의 담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⁵⁾ 박혜숙 교수는 고려속요에 나타난 여성화자는 하나같이 자기정체성을 잃고 사물화된 존재, 즉 ‘타자’로 노래되었음을 지적하고⁶⁾, 박애경 교수는 사설시조의 여성화자가 실은 妓房과 같은 유흥공간에서 남성의 일탈적 욕망을 투사하는 장치였음을 주장하여 많은 공감과 비판을 불러 온 바 있다.⁷⁾ 이들의 논거는 현실의 性이 ‘남성’인 작가가 性別이 ‘여성’인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올 때는 자신보다 우월한 누군가 앞에서 무력한 타자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론의 핵심은 고려속요나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화자가 현실의 性이나 性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대행 교수는 “사랑을 노래하는 화자가 여성인 것은 성향으로 그러한 것이지 남녀로 양분되는 현실 속의 性別을 말하는 것은 아니”⁸⁾라고 주장한다. 여성주의적 시각을 표방한 이형대 교수도 “본고에서 더욱 주

5) ‘性別(gender)’은 생리학적인 ‘性(sex)’과는 달리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 남성적 특질 혹은 여성적 특질은 문화권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변적이다. 젠더에 대한 설명은 박혜숙, 앞의 논문, pp.24~25;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서울대 박사논문, 2004), p.113을 참조.

6) 박혜숙, 앞의 논문.

7) 박애경, 「사설시조의 여성화자와 여성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집(한국여성문화회, 2001).

8) 김대행, 「문학의 화자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화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월인, 2003), p.20.

목하고자 한 점은 창작자와 시적 화자의 동일성 여부가 아니라, 시적 담론의 의미 지향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작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욕망들이 생성적이고 능동적인 변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놓여 있을 터이다.”라고 하면서 여성화자를 빌어 표출한 사설시조 속의 욕망을 ‘타자성’을 떠나 좀더 신중하게 살필 것을 제안하고 있다.⁹⁾

‘여성화자 논의에서 실제 작가의 性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논리는 「노처녀가(1)」을 분석한 박일용 교수의 논문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는 주석을 통해 박혜숙 교수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비판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박혜숙 교수는 작품의 실질적 주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여성인 체 말하기’·‘여성에 빚대어 말하기’ 유형과 ‘여성으로서 말하기’ 유형을 구분하고, ‘여성인 체 말하기’와 ‘여성에 빚대어 말하기’ 유형의 차이는 남성 주체가 자신이 남성임을 숨기려는 의도를 지녔는가, 그러한 의도가 없었는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일용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가령 ‘여성으로서 말하기’와 ‘여성에 빚대어 말하기’는 작가에 대한 정보로만 구분되는데, 그렇다면 전자에 분류되었던 작자 미상의 고려가요 가운데도 작가가 남성임이 밝혀진다면 ‘여성에 빚대어 말하기’나 ‘여성인 체 말하기’로 재분류되어야 할 것인가? 또한 작가가 남성으로 밝혀졌거나 추정되는 「정과정」이나 「이상곡」도 작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여성으로서의 말하기’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또, ‘여성인 체 말하기’의 전형적인 예로 거론된 「쌍화점」이 여성의 정서와 반드시 상치되는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¹⁰⁾

9) 이형대, 「사설시조와 여성주의적 독법」,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 시각』(소명출판, 2003), p.310.

10) 박일용, 「〈노처녀가(1)〉의 담론 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김병국 외, 『조선후

이러한 의문에 대한 박혜숙 교수의 견해는 아직 들진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어 재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작가의 성별(gender)은 텍스트적 의미의 유통과 수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¹¹⁾ 예컨대 어떤 작품을 연군시가로 유통시킬지 애정시가로 유통시킬지 결정해 주는 것은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작가의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달려 있다.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은 작가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할 동안은 충신연주지사로서만 향유되다가 사대부의 이념이 해체되는 후기에는 애초의 寓意가 망실되고 순수한 戀歌로서 향유되는 변화를 겪는 것이¹²⁾ 그 예가 된다. 고려가요 가운데서도 「정과정」은 작가가 남성으로 알려진 채 유통되었기 때문에 충신연주지사로서 작품의 의미가 고정될 수 있었다. 「이상곡」은 『樂學便考』에 작가가 ‘蔡洪哲’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기록의 신빙성이 의심되면서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다.¹³⁾ 채홍철을 작가로 보는 입장에서는 “자기를 미워해 쫓아낸 충숙왕에의 원망과, 자신을 총애하던 충선왕에의 연모를 교차시켜 일종의 ‘戀主之詞’로서 「동백목」과 함께 지었을 것”이라 추정되기도 하였다.¹⁴⁾ 「冬栢木」 또한 채홍철의 창작인지 옛날 노래의 개작인지 분명치 않지만, 이 노래로 말미암아 충숙왕이 감동하여 그를 유배에서 풀어 준 사건만큼은 사실로 전승되어 왔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박혜숙 교수는 이 노래의 작자가 꼭

기 시가와 여성』(월인, 2005), pp.76~77.

- 11)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류, 1998), p.67.
 12) 김학성,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서민적 미의식」, 『국문학의 탐구』(성균관대출판부, 1987), p.221.
 13) 김학성, 「고려가요의 작자층과 수용자층」, 『한국학보』 31집(일지사, 1983), p.212에서는 전래의 가요를 채홍철이 수정하여 재창작 한 것으로 보았다.
 14) 장효현, 「이상곡의 생성에 관한 고찰」, 『국어국문학』 92호(국어국문학회, 1984), p.172.

채홍철은 아니더라도 남성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최미정 교수가 “履霜”이라는 명칭 자체에 ‘다른 사람의 참소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한 노래의 전통이 결부되어 있으며, 「정과정」과 “아소 남하”라는 감탄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쫓겨난 신하의 노래로 해석한 바 있다.¹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상곡」의 실제 작가의 性이 남성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冬栢木」과 함께 채홍철의 작으로 『樂學便考』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기록은 작가의 사회적·문화적 性別을 ‘남성’으로 여겨온 수용자층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작품의 실질적 주체가 여성이라서 ‘여성으로서 말하기’ 유형에 비정되었던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 「상저가」 등의 작자가 실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작품 속에 나타난 비애, 기다림, 유약함, 수동성의 性別은 언제나 ‘여성’이었다. 이 性別은 작가의 생물학적 성과는 무관하기에, 설사 작가의 실제 性(sex)이 남성임이 밝혀진다고 해서 이들 작품을 ‘여성에 빚대어 말하기’ 유형으로 재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性이 남성인 작가가 性別에서는 여성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여성으로서 말하기’ 유형에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박일용 교수의 지적대로 남성 주체가 자신이 남성임을 숨기려는 의도를 지녔는가, 그러한 의도가 없었는가에 따라 ‘여성인 체 말하기’와 ‘여성에 빚대어 말하기’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작가의 생물학적 性을 떠나서 남성 주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의 생물학적 性만이 유일한

15) 최미정, 「〈이상곡〉의 종합적 고찰」,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집문당, 1996), pp.251~253.

기준이 되는 한, 박일용 교수의 비판은 정당하고 유효하고 본다.

이 부분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부딪치는 어려움은 많은 논의들이 性과 性別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박일용 교수도 그러한 듯하며, 여성화자를 가리켜 “남녀로 양분되는 현실 속의 性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김대행 교수 또한 생리학적 性과 사회문화적인 性別(gender)을 구분하는 입장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다. 심지어 性別을 강조한 박혜숙 교수도 ‘남성’과 ‘여성’을 ‘작품의 실질적 주체’라고 일컬음으로써, 性과 性別을 넘나드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고려속요를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별’을 분석해 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고려사』 『악지』에 언급된 많은 고려 노래 가운데에서 조선조에서 사용되었던 노래들은 공교롭게도 철저히 탈사회적인 여성을 화자로 한 노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오직 사랑의 상대역에 국한될 뿐, 신분도 계층도 은폐되어 있는 존재들로 오직 내적 갈등에 함몰되어 있는 여성들이다.¹⁶⁾ 여성화자 유형 분류에 드러난 ‘범주의 자의성’ 문제는 사회적 맥락이 은폐된 여성화자를 통해 사회적·역사적으로 구성된 ‘性別’을 추출하는 데서 생겨난 오류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속요의 여성화자가 현실의 성별을 넘어선 더 큰 전일성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주장은 고려속요에 나타난 여성정서의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을 때만 가능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16) 최미정 교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든다. 즉 조선건국 시기 위정자들은 고려를 상기시키는 요소가 희박한 노래들을 선택하여 아송창작이 요구되었던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고, 여성화자의 맹목적인 태도를 신하의 자세로 부각시켜 우리말 雅頌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연구』, 계명대 출판부, 1999, pp.91~110).

2.2 여성정서의 진정성 : 전일성과 당파성

박일용 교수가 제기한 문제 중 마지막은 「쌍화점」과 성적 일탈을 노래하고 있는 사설시조들이 반드시 여성의 정서와 상치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노래들에도 여성의 진정성이 스며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남성 작가의 여성화자 시가에 나타난 정서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여성적인 것을 양성적이거나 전일적인 ‘인간’의 성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행 교수는 “여성화자는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양성이 혼재하는 내면에서 기회를 얻어 발휘되는 하나의 성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조세형 교수는 “초월적이면서도 지상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송강가사의 여성화자는 남녀의 구별과 대립을 넘어 심리와 윤리, 가시적인 세계와 신화적인 세계가 합치되는 더 큰 전일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고 말한다.¹⁷⁾

그러나 양성성이나 전일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혹시 남성의 특권을 누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능하다. 근대사회의 예지만, “남성성은 산업, 합리성, 자기절제 등 중산계급의 규범과 동일시되었던 까닭에 남성 예술가는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것과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흔히 兩性的인 인물로 인지될 수 있었다.”¹⁸⁾ 즉 양성성은 당대 지배적인 문화의 규범을 구유한 상태에서 타자를 쉽게 합치시킬 수 있는 남성 작가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여성주의적 시각의 저돌성이 자칫 거친 흑백 논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17) 조세형, 「송강가사에 나타난 여성화자와 송강의 세계관」,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월인, 2003), p.102.

18) 리타 펠스키, 앞의 책, p.153.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잠시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

(가) 민중적 리얼리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적 문학연구 또한 '운동'과 맞물려 다소 선동적으로 전개되어 온 혐의가 있다. 변혁을 향한 열망이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작용하고, 거친 흑백논리가 사태나 실상의 왜곡을 초래하고, 또한 이러한 왜곡이 자타의 혐오와 불신을 낳는 악순환 속에 자칫 불모의 황폐로 기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¹⁹⁾

(나) 최근 십 여 년 내 여성주의의 영향권 내에서 진행된 고전시가 연구사는 하나의 큰 특징을 보여준다. 그것은 '새로운 시각과 깊이'가 무르익어 감에 따라 여성 시가작품의 여성 경험, 이미지, 욕망은 더욱 '단일성', '특수성'을 지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략) 수 십 세기를 살아온 수많은 여성들의 다단한 삶의 체험과 그로부터 빚어졌을 듯한 노래들은 어디가고, 한 가지 목소리, 이미지, 규범, 체험의 '고유한 여성'의 모습만 문학사의 그물에 걸려 있는 셈이다.²⁰⁾

(가)는 선동적인 페미니즘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나)는 페미니즘이 진보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씌어졌지만, 페미니즘의 편협성을 지적한다는 점은 같다. 여성주의적 시각의 존재이유가 여성만의 특수한 체험이라는 '당파성'에만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면 연구가 거듭될수록 시각이 협소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세형 교수는 “‘인간은 누구나 당파성을 떨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민중(이제는 여성)의 당파성이 더 객관적이다’라는 식의 명제는 언제나 대상의 일면을 설명하는 데 그친 논리”라고 지적하면서 “여성의(여성이 쓴), 여성다운(여성 해방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19) 김병국, 「이 책의 의도와 시각 그리고 내용」, 김병국 외, 앞의 책, p.15.

20) 신경숙, 앞의 논문, pp.315~316.

기존의 논리로 잘 설명되지 않는 여러 국면을 포괄하여 ‘여성스러운(여성적인)’ 글쓰기로 관심을 확장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말한다.²¹⁾

그런데 이러한 제언이 만약,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하다’는 일반론에 기대고 있다면 그 또한 남성지배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한 것일 수 있다. 어떤 사회 집단이든지 자신들의 특수한 욕구를 그 사회의 보편적인 욕구인 것처럼 논증해 내려 애쓴다는 점을 생각할 때, 흔히 말하는 ‘보편’이나 ‘전체’ 속에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녹아 있지 않는지 예민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성주의에서는 보편성, 객관성, 리얼리티 등의 철학적 미학적 개념들이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임을 역설하여 왔으나,²²⁾ 이런 주장이 지나친 피해의식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자.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사물화함으로써 하층 남성의 황폐한 삶을 적나라한 형태로 보여준다. 目不忍見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치를 떠는 여성 관객이나 평론가들을 향하여 일부 남성/여성 평론가는 왜 작품의 전체적인 지향점을 보지 않고 부분에 집착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생인손처럼 부분에서 發한 고통이 온몸을 집어삼키듯이, 여성들이 느끼는 고통은 부분과 전체의 위계를 거부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점들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면, ‘보편적인 것에 의한 특별한 것의 통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것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²³⁾ 여성주의자들만의 울림이 될 수 없다.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논리로 잘 설명되지 않는 여러 국면을 포괄”한 ‘여성스러운(여성적인)’ 글쓰기란, 여성

21) 조세형, 『여성적 글쓰기의 원론적 고찰』, 김병국 외, 앞의 책, pp.148~156.

22)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소명출판, 2005), pp.22~23.

23) 위의 책, p.22.

을 더 큰 타자로 보는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될 필요가 있다. “여성을 남성적인 사회적·상징적 질서의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형언할 수 없는 타자에 위치에 놓는 것”도 근대의 이원론적 도식의 주요 논리이기 때문이다.²⁴⁾

이처럼 남성중심적 시각의 침윤을 의심받는 ‘전일성’이 여성적 특수성을 지적하는 ‘당파성’보다 항상 옳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나)와 같이 페미니즘의 편향성을 경계한 신경숙 교수는, 그 극복 방법을 ‘전일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안한다. 즉 ‘여성’이라는 젠더적 이슈가 신분, 직역, 시대, 문화적 경험, 취향 등 무수한 차이를 포괄하여, ‘여성’의 내포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당파성’의 대안으로 ‘전일성’을 제시하기에 앞서 문학작품 속의 여성화자가 환기하는 의미가 성별에 따라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더 활발히 일어나도록 복돋아야 할 것이다.

「쌍화점」으로 돌아와 보면, 여기서 성적인 담론을 전달하는 여성화자가 여성의 주체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지, 사물화된 투사체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려면 각각 작가의 성별과 역사적 단계가 다른 다음의 여섯 가지 텍스트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 『악장가사』의 「쌍화점」
- (2) 『대악후보』의 「쌍화점」
- (3) 『시용향악보』의 「쌍화곡」
- (4) 『고려사』의 「삼장」, 「사롱」
- (5) 민사평의 소악부
- (6) 「삼장」을 연의한 김만중의 「악부」

24) 리타 펠스키, 앞의 책, p.49.

위의 여섯 가지 텍스트는 손목을 잡히는 여성①과 손목을 잡는 남성의 애정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1)은 박혜숙 교수가 “여성인 체 말하기” 유형으로 분류한 텍스트이다. 소문을 걱정하는 여성①의 목소리에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여성②)”와, “고잔디 7티 덮거츨니 업다(여성①)”는 균열적인 목소리가 더해져서 남성적 욕망이 투사된 색정적인 여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2)는 축약된 형태지만 1연의 경우 (1)과 대동소이한 텍스트성을 가진다. 이와는 달리 여성①의 조심스러운 목소리로만 이루어진 (4)나 (5)는 원래 민간에서 성행하던 노래에 가깝다고 박혜숙 교수는 해석한다.

박교수는 (3)과 (6)은 언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들 노래의 의미가 (1)과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조선조에 들어 남녀상열지사 비판의 일환으로 「쌍화점」을 개작한 (3)은 ‘쌍화’라는 字意 정도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리만큼, 개작이 아니라 전혀 다른 텍스트로 볼 수 있다. 그 주제는 임금 혼자만의 독단에 빠지지 말고 신하들과 한 마음으로 화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쌍화점」에서 소문을 두려워하는 여성화자를 남성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된다. 이미 (4)와 (2)에도 “뜬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사태의 진실을 마음으로 헤아려 알아야 한다.”²⁵⁾는 남성젠더화된 문제의식이 드러난 바, 남성의 도덕관념이 여성화자에 빚대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6)에서 여성①의 애정은 세속을 초월한 法悅의 경지를 이룩해 낸 남녀결연으로 재해석되고 있는데²⁶⁾, 작자가 김만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가장 내밀한 여성화자

25) 정운채, 「『악장가사』의 <쌍화점>과 『시용향약보』 <쌍화곡>과의 관계 및 그 문학사적 의미, 『인문과학논총』 26집(건국대, 1994).

의 목소리로 여겨질 만한 텍스트다. 아니면 가시적 세계에서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로 구분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를 표현한, 여성화자의 '전일성'을 (6)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쌍화점」의 여성화자는 민간의 노래였을 당시 내포하고 있었을 여성 자신의 욕망과, 궁중 속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남성 젠더의 도덕적 요구나 색정적 욕망, 초월적 이념도 모두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²⁷⁾ 여성화자의 다양한 잠재력이 1차 작자(민간층), 2차 작자(編詞者), 1차 향유자(민간층), 2차 향유자(편사자로서의 작자), 3차 향유자(임금 및 측근)²⁸⁾의 性別과 교차하여 만들어 내는 텍스트의 의미는 무궁무진할 수 있다.²⁹⁾

그렇다면 이러한 수많은 의미들 가운데 왜 하필 여성화자의 성적 욕망이 문제인가? 미셸 푸코는 “권력 관계에서, 성적 욕망은 가장 많은 술책에 이용될 수 있고 가장 다양한 전략들을 위해 거점이나 연결점의 구실을 한다.”³⁰⁾고 역설한다. 여섯 개의 텍스트로 변주되는 「쌍화점」을 통해 우리는 여성화자의 성적 욕망이 남자와 여자, 임금과 신

26) 정운채, 「〈삼장〉 및 〈쌍화점〉과 〈서동요〉의 관련양상」, 『고전문학연구』 10집 (고전문학회, 1995), p.133.

27) 이러한 유연성은 비단 「쌍화점」에만 해당하지 않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손쉽게 타자화할 수 있는 대상이면서, 또한 타자라는 무력감으로부터 저항적인 힘이 나오는 '여성'의 이율배반적 성격 자체가 다양한 해석들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Lawrence Lipking, *Abandoned Women and Poetic Tra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28) 작자와 향유층을 이렇게 5가지로 세분한 것은 신은경 선생님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29) 『고려사』의 「삼장」, 「사릉」에 대한 임주탁 교수의 최근 견해는 여성화자의 함의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말해 준다. 그는 이들 노래들이 무신집권기 이후 부상한 모든 세력집단을 하나의 질서 체계 안으로 포용하려는 노력의 산물임을 주장하였다. (임주탁, 『고려시대 국어시가의 창작·전승 기반 연구』, 부산대 출판부, 2004, p.6).

30)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권-압의 의지』(나남출판, 1990), p.117.

하, 자기 내면의 두 목소리 등, 수많은 미시적 권력 관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시적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후대 연구자의 性別 경험과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3. 화자시학의 남성젠더적 성격

性別과 진정성 논란에서 보듯이, 여성화자는 그 작품을 유통시키고 향유하는 역사적 실체들의 의식과 분리된 채 해석될 수 없다. 그러나 '화자'의 시학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성화자의 역사적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페르소나로 불리는 화자의 가면적 성격은 텍스트 밖의 인생과는 독립되어 있는 문학작품의 자율성을 대변해 왔다. '화자'가 형식주의 비평의 핵심 용어가 된 것은 이렇듯 초시간적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화자'의 시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박일용 교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문학작품에서 화자와 작가가 일치되는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작품 자체는 작중 화자를 매개로 하여 작가가 온전한 체계를 갖춘 텍스트 형태로 재구성한 독립적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시가들을 해석하면서 ‘빛대어 표현하기’ 또는 ‘여성인체 말하기’ 등의 형식을 적출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시의 내용 또는 작가 등을 추단하는 경향은 자칫 시학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위험이 높다”고 비판한다.³¹⁾ 즉 박혜숙 교수의 견해는 여성화자와 실제 작가의

31) 박일용, 앞의 논문, pp.107~108.

성별을 혼동하여, 문학작품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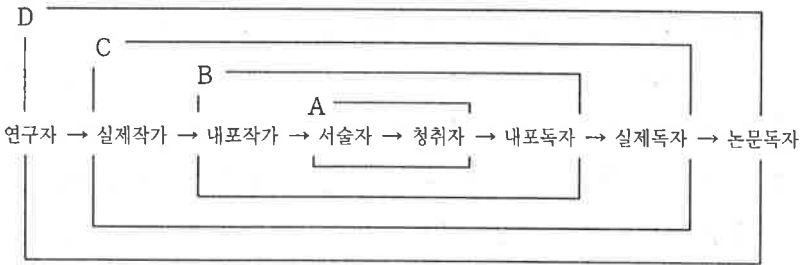
이러한 비판은 예술에 대한 여성 특유의 반응을 비판하는 논리와 상당히 흡사하다. 보통 “여성은 텍스트와 인생을 구별할 수 없는 순진한 독자의 원형”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여성독자들은 문학을 나르시시즘적 만족과 자아상실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문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며, 주체와 대상, 자아와 텍스트 사이의 구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³²⁾ 실제 작가와 작품 속 화자의 허구적 형상을 구별하지 않는 연구자들은 어느 면에서 텍스트와 인생을 혼동하는 여성 독자 특유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서술대상과의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감상주의에 빠진다는 지적은 여성문학사의 서술자들이 흔히 듣는 비판이었다. 연구자가 여성으로서의 동질감에 기반하여 여성문학의 과거를 바라볼 때 이런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³³⁾

그런데 여성화자를 다루는 모든 여성 연구자가 서술의 객관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권정은 교수와 정인숙 교수는 가사에 나타난 여성화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작품 속에서 화자가 담당하는 문학적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여성 목소리의 진정성이나 여성해방적인 요소들을 부각시켜 온 여성주의적 시각과는 거리를 둔 독립적 관찰자가 되고 있다. 특히 정인숙 교수의 경우, 동성화자, 이성화자, 양성이 혼효된 화자의 연군/애정 가사를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성별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작품 속 목소리들의 문학적 유형 분석에 전념한다. 즉 ‘여성화자’를 분석하는 목적이 ‘여성다운 것(여성성)’이 아닌, ‘문학다운 것(문학성)’을 규명하는 데 있는 것이다.³⁴⁾

32) 리타 펠스키, 앞의 책, pp.139~140.

33) 이러한 사정은 이경하, 앞의 논문, pp.64~70에 자세하다.

그런가 하면 18세기라는 특정 시기 남성작가의 여성화자시를 연구한 안대회 교수는, “여성화자시는 사랑의 감정에 목마른 사대부의 대리욕구의 한 방편으로, 사랑에 우는 스테레오타이프의 반복·습작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여성화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와 남성의 욕구를 지적하는 동시에 18세기 한시의 여성정감에는 중세해체적인 저항적인 힘이 내포되어 있었음에 주목한다.³⁵⁾ 실제 작가의 성별과 역사적 실체가 투명하게 드러난 한시에서의 여성화자에 비해, 실제 작가의 성별도 역사적 실체도 모호한 고전시가의 여성화자에서 이러한 양면의 이데올로기적 분석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고전시가 분석에 애용되는 형식주의에서는 실제 작가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조차도 작품의 내부적인 화자와 실제 작가를 엄밀히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³⁶⁾ 다음과 같은 소통구조를 보자.



34) 정인숙, 「가사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목소리 연구-연군가사와 애정가사를 중심으로-」(서울대 박사논문, 2001).

35) 안대회, 「18세기 여성화자시 창작의 활성화와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월인, 2003), p.131.

36) Alex and T. V. F. Brogan eds.,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1993, p.901.

연구자와 논문독자라는 D층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채트만의 서사적 전달 모델을 거의 그대로 적시한 것이다. 서사 이론에서는 '내포작가'를 육신을 갖춘 '실제작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실제작가'는 늘 텍스트 밖에 존재하지만, '내포작가'는 언제나 텍스트 안에 존재하면서 그 텍스트를 꾸미고, 여차여차한 이야기 부분을 빼거나 넣는 일에 책임을 진 사람이다. 같은 논리로서, 텍스트 속에 숨어 있는 독자를 '실제독자'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독자'는 텍스트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책이 제시한 이야기의 순서대로 읽을 수도 읽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책에서 작가가 인물이나 사건에 가하고 있는 가치 판단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³⁷⁾

그런데 이처럼 텍스트에 대해 미적 거리를 두는 것은 여성적 글읽기와는 배타적인 남성젠더화된 글읽기 방식이다. 여성화자에 대한 박혜숙 교수와 박일용 교수의 견해차와, 두 분의 논문을 읽은 독자가 된 여성연구자와 남성연구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연구자의 性別 의식이 글읽기에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문학작품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중립적이라기보다는 남성젠더적인 입장에 가깝다고 말하는 필자 역시, 스스로의 성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화자의 시학을 강조하는 입장과 여성주의적 입장은 각각 남성젠더화된 글읽기와 여성젠더화된 글읽기 방식에 기초해 있으며, 둘 다 당파적이라는 사실이다.

남성젠더화된 글읽기와 여성젠더화된 글읽기의 우열을 가려서 어느 하나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학문 방법론으로 등극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양자는 서로 다르면서 동시에 대등한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인

37) 이상의 설명은 김병국, 「판소리 서사체와 문어체 소설」,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서울대 출판부, 1995), pp.185~186에 의거함.

식론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리얼리티'를 파악하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리얼리즘의 기본 정신에 걸맞게, 물질적 현상이 그것을 판단하는 인간의 주관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입장이다. 문학을 객관적 실재라고 할 때, 그것을 읽어내는 당대의 작가나 독자, 오늘날의 연구자나 논문의 독자의 인식적 주관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학'의 기저에는 리얼리티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美나 도덕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결코 인간의 감정 및 태도들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³⁸⁾ 텍스트의 가치가 인간의 감정 및 태도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은 사물과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여성젠더화된 독법과 연결된다.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B와 C, C와 D의 경계마다 사실세계를 시적으로 변형시키는 주관적인 내면이 여성의 성별을 지닌 것인지 남성의 성별을 지닌 것인지가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4. 여성화자 연구의 전망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편협성을 넘어서려고 노력한 논리들도 그 나름의 당파적 입장에서 있음을 강조해왔다. 즉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감싸 안고 더 큰 전일성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은

38) *Consise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pp.744~745.

특권을 누리는 남성의 전유물일 수 있으며, 문학작품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화자시학’은 중립적이라기보다는 남성젠더적 독법에 기반한 논리라는 것이 이 글의 생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화자’ 연구가 ‘양가성’이나 ‘전일성’, ‘시학의 본질’로 이해되는 통합적인 ‘여성성’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성화자 연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이 방면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지 못한 필자에게 떠오른 단편적인 생각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화자 해석에 간섭하는 당파적 입장, 그 가운데도 性別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당파적 해석들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 「쌍화점」만 하더라도 여섯 가지 텍스트에 관련된 내포작가, 실제작가, 3경의 향유자의 성별도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①과 여성②에 대한 해석도 다의적이다. 여기에 연구자의 性別까지 변수로 고려한다면 「쌍화점」 연구의 쟁점이 지금처럼 단순히 여성을 주체적으로 그렸느냐, 타자화 했느냐 하는 문제로만 귀착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화자 속에 교차되고 있는 수많은 미시적 권력관계를 분석해 내기 위해서는 당파적 입장에서의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다양한 당파적 해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연구시각 자체를 공시적인 관점에서 통시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서로 간의 소통이 없다면 수많은 당파적 해석들이 또 다시 ‘남성’·‘여성’이라는 두 개의 당파적 입장으로 환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공시적인 관점으로는 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바, 여성화자 속에 숨은 역사적 실체의 이데올로기를 규명하기가 어려웠다. 여성주의적 연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파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방법론을 고집해 온 것이 아닐까 한다. ‘여성화자’에 대한 날카

로운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준이 고려가요와 사설시조에서 획일화된 여성화자를 적출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은, 공식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시대마다 향유자들이 지닌 역사적 실체가 달라짐에 따라 여성화자의 목소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설시조만 하더라도 18세기 동안은 여성형상이 생산과 자유를 향한 여성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 있지만,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유흥의 공간에서 소비된 사설시조 속의 여성의 욕망은 현저히 사물화되는 현상이 발견된다.³⁹⁾ 다른 장르에서도 여성화자의 통시적 변모 상을 추적해 본다면 더 큰 '전일성'을 지닌 여성, 여성 해방적인 여성, 허구적이고 타자성을 띤 여성들이 줄줄이 소환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향유층의 젠더 의식에 따라,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계급적 이해에 따라, 문학 작품이 소비되는 맥락에 따라 여성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특별히 부각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여성화자 연구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참고문헌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슈얼리티·병리학』(책세상, 2001), pp.8~9.
- 고정희, 「여성의 수사적 상황과 사설시조」, 김병국 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월인, 2005), pp.56~65.
- 권정은, 「여성화자 가사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2000), pp.9~11.

39) 줄고, 「여성의 수사적 상황과 사설시조」, 김병국 외, 앞의 책, pp.56~65.

- 김대형, 「문학의 화자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월인, 2003), p.20.
- 김병국, 「판소리 서사체와 문어체 소설」,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서울대 출판부, 1995), pp.185~186.
-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소명출판, 2005), pp.22~23.
- 김학성,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서민적 미의식」, 『국문학의 탐구』(성균관대 출판부, 1987), p.221.
- 김학성, 「고려가요의 작자층과 수용자층」, 『한국학보』 31집(일지사, 1983).
- 박예경, 「사설시조의 여성화자와 여성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집(한국여성문학회, 2001).
- 박일용, 「〈노처녀가(1)〉의 담론 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김병국 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월인, 2005), pp.76~77.
-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고전문학연구』 14집(한국고전문학회, 1998), pp.24~25.
- 신경숙, 「고전시가와 여성-연구사 검토와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창간호(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 안대희, 「18세기 여성화자시 창작의 활성화와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월인, 2003), p.131.
-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서울대 박사논문, 2004), pp.64~113.
- 이형대, 「사설시조와 여성주의적 독법」, 정출헌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 시각』(소명출판, 2003), p.310.
- 임주탁, 『고려시대 국어시가의 창작·전승 기반 연구』(부산대 출판부, 2004).
- 정운채, 「〈삼장〉 및 〈쌍화점〉과 〈서동요〉의 관련양상」, 『고전문학연구』 10집(고전문학회, 1995), p.133.
- 정운채, 「『악장가사』의 〈쌍화점〉과 『시용향악보』 〈쌍화곡〉과의 관계 및 그 문학사적 의미」, 『인문과학논총』 26집(건국대, 1994).
- 정인숙, 「가사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목소리 연구-연군가사와 애정가사를 중심으로-」(서울대 박사논문, 2001).
- 조세형, 「송강가사에 나타난 여성화자와 송강의 세계관」,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월인, 2003), p.102.

- 조세형, 「여성적 글쓰기의 원론적 고찰」, 김병국 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월인, 2005), pp.148~156.
- 최미정, 「〈이상곡〉의 종합적 고찰」,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집문당, 1996), pp.251~253.
-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계명대 출판부, 1999).
-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 pp.67~153.
- Alex and T. V. F. Brogan eds.,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1993, p.901.
- Lawrence Lipking, *Abandoned Women and Poetic Tra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Consise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pp.744~745.

Abstract

Issues in Female Speaker in Korean Classical Poetry

Ko, Jeong-Hee

The issue of interpreting female speaker in Korean classical poetry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ubjects. This paper aims to comprehend the core of the controversy over female speaker by highlighting the poetical problem of 'speaker'.

Those who regard 'speaker' as a poetic paradigm assert that we should distinguish female speaker from author. They focus on the 'femininity' as 'wholeness' which is unconcerned in the author's sex/gender. However those who regard 'speaker' as an ideological device focus on the poetic truth which is derived only from the identical gender speaker. They put emphasis on the uniqueness of female experience and partiality, and this is why they have been criticised for intolerance.

I insist that the alternative of the partiality could be another partial assertion. 'Wholeness' might be a privilege of man and 'poetics of speaker' is also male methodology. Though I stress the partial research rather than the assertion of the wholeness, what is necessary is to transfer our viewpoint from synchronic to diachronic to solve the controversy.

key words : Korean classical poetry, female speaker, feminism, poetics of speaker, wholeness, partiality, gender.

■ 위 논문은 4월 3일 투고되어, 5월 6일 심사완료 후, 5월 1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